

상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의 27.5%였다.

4) 일반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체는 38개 업체(47.5%)였다.

2.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교육경험을

1) 신규채용시 안전 및 보건교육경험율을 내용별로 볼 때, 생산기능직 근로자의 64.2%가 기계·기구의 위험성 및 취급방법을 교육받았고 원재료의 유해성 및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경험율은 42.2%였다.

2) 생산기능직 근로자중 작업내용변경시 교육경험율은 63.6%였다.

3) 특별안전 및 보건교육경험율은 74.8%였다.

4) 일반안전 및 보건교육경험율을 내용별로 보면 신체검사 전후교육경험율이 사무관리직 근로자는 47.2%, 생산기능직 근로자는 50.0%로 다른 내용에 비해 교육경험율이 가장 높았다.

3. 안전 및 보건교육의 실시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가 건강관리보건담당자(간호원)의 지식과 경험부족 및 타 산업안전보건요원과의 협력부족, 두번째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교육에 대한 낮은 요구도 때문으로 나타났다.

4. 조사대상 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을 보면, 첫째가 신체검사 전후교육, 두번째가 안전사고 예방, 그 다음이 건강관리와 성교육 및 가족계획 순이었다.

산업보건의 발전과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집중하는 초기단계, 일차대전후 위생공학의 발전과 아울러 공업중독과 직업병 예방에 직업적성, 인간관계를 포함한 산업심리 및 성인병 관리를 포함한 노년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정신위생에 관한 과제들이 문제로 대두되는 제3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,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사업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가 있다.

초기단계에 있는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, 정부의 계속적인 홍보 및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전문산업안전보건요원의 양성, 그리고 근로자들 스스로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등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알고 개선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이 가장 필요하며, 사업주는 이윤추구의 원천이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겠다.

포항지역 공장근로자의 간흡충감염 의식 조사

한 미 현

본 연구는 간흡충병충 관리를 목적으로, 포항시 근로자의 간흡충감염율을 산출하고, 감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했으며 또 감염자의 치료에 대한 반응 및 효과를 알아 보았다.

1986년 9월~10월에 실시한 근로자 3,180명의 신체검사 결과에서 간흡충 총란양성자에 대해 치료제를 투여한 후 1년후(1987년 10월)재검사를 실시하였다. 그리고 비감염자중에서 104명을 비교군으로 선정하여 이 두 집단에 대해 본인 작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하였다.

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.

1. 조사대상자의 간흡충 총란양성율

간흡충에 대한 피내반응 양성자 중 총란양성율은 21.6%였다. 그리고 이 총란양성자 129명은 모두 남자였다.

2. 간흡충 감염에 영향을 주는 요인

1)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가 간흡충 감염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즉 학력이 높을수록 감염자 수가 적었다. ($p < 0.01$)

2)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강변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는 비인접지역에 비해 감염자가 많았다. ($p < 0.01$)

3) 그리고 이제까지 민물가에 거주했던 경력이 감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왔다. ($p < 0.01$)

4) 담수어를 회로 먹는 경우 역시 다른 방법으로(익히거나 끓여서 먹는 경우에 비해) 감염자가 많았다. ($p < 0.05$)

5) 감염자중에 관한 지식중에 감염원인에 대해서는 감염자군의 정답율이 비감염자군보다 낮았다.

6) 1986년도 이전에 간디스토마 검사를 받았던 사람은 감염이 덜된 것으로 나왔다. ($p < 0.01$)

7) 또 감염자군에 있어서는 대조군보다 다르게 가족구성원의 간흡충 감염이 더 많았다. ($p < 0.01$)

3. 간흡충 감염자의 치료에 대한 태도 및 효과

1) 1986년도 총란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투약후 1년후에 재검사한 결과 85.4%의 총란음성율을 얻었다.

2) 총란음성자의 치료약 복용율은 70.8%였고, 약복용후에 개인적으로 결과확인을 위한 검사를 해본 사람은 3.1%에 불과했으며 또 치료약을 복용한 후에도 민물고기를 계속 생식한 사람이 29.4%나 되었다.

이상을 종합해볼때 형산강 하류에 위치한 포항지역은 간흡충증의 유행지로 판단된다. 따라서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, 치료약을 투여하여 감염자의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한다. 무엇보다도 피내반응 양성자중 상당수가 대변검사에 불응하였고 무료로 약을 공급해도 70.8%만이 약을 복용했으며 29.4%가 약을 복용하고도 민물고기를 계속 생식하는 점 등을 보아 적절한 보건교육이 검사 및 치료전반에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산업장 근로자들의 보건관리 실태와 간호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

최신의학, 제32권 제2호, pp. 83~88, 1989.

강 현 속.

1. 결론

1987년 10월 7일~10월 30일까지 산업장 의무실과 산업보건 간호사가 있는 포항시의 일 종합제철산업장의 근로자 300명을 포집하여 그중 283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.

자료분석은 S. P. S. S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백분율, 평균차 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 등으로 분석했다.

A. 대상자의 보건관리 실태

1) 건강상태

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산업장 의무실(56.5%)이 가장 많았다.

② 1년간 의무실 이용횟수는 2개월에 1회(62.9%)가 가장 많았다.

③ 산업장 근무 이후 경험한 자각증상은 소화불량(30.7%)이 가장 많았고, 다음은 청력감퇴(15.2%), 감기(14.5%), 기관지염(8.5%), 두통(7.4%), 피부병(4.9%), 불면증(3.9%), 고혈압(1.8%)등의 순이었다.

④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각은 보통(63.6%)이 가장 많았으며, 양호(23.7%), 불건강(12.7%) 순이었다.

2) 산업재해